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세상은 복잡하다. 그래서 경구(警句)가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경구를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라고 정의한다. 경구에는 힘이 있다. '하면 된다', '못 살겠다 잡아 었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같은 경구는 국민·유권자를 움직인다. 강한 종교는 경구가 강하다. 예수 관련 경구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가 있다. (마태오 22:21) 로마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말이다. '동문서답' 인지도 모른다. 사실 예수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해법에 압도된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을까.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 무엇이 하느님 것이란 말이요? 가축과 곡식은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것이니,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이요? 가축과 곡식은 세금을 부과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카이사르의 것이기도 하오. 그러나 내라는 말이요?'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각 신문이 속한 정파에 따라

경구가 시급하다

상반된 제목을 뽑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이다. -신문1. '예수, '하느님께 속하는 가축과 곡식을 세금으로 바치면 안 된다'며 민중을 선동' -신문2. '예수, '하느님의 것인 기도와 찬양만 하느님께 잘 드리면 된다'며 세금 납부 묵인...예수도 진로 마 민족반역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신문3. '예수, 반대파들이 파놓은 함정을 하느님의 아드님다운 지혜로 멋있게 풀라' '카이사르 카이사르, 하느님 하느님'(Caesar, Caesar; God, God)은 세속주의와 정경분리의 원전 텍스트 중 하나다. 세속주의는 지나친 쾌락이나 물질주의의 같은 뭔가 부정적인 것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세속주의의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말샘'은 세속주의를 '사회 제도나 그 운영 등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속과 종교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인정하자는 주장이나 견해'라고 정리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서부유럽이 팽창한 결과다. 세속주의는 서구가 시작한 국제·정치·경제적 빅뱅의 비법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다른 문명권과 달리 서구는 세속과 종교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분리 덕분에 자본주의·민주주의라는 세속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모두 각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번창했다. 아직도 세상 많은 나라가 세속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속주의 물결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또 다른 글로벌 경구로 '예할 때 예, 아니오 할 때 아니오(Yes, yes; no, no)'가 있

다. (마태오 5:37) 이 경구는 실용주의와 래디컬리즘과 직결된다. 어떤 주장이나 정책이 우리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과 국익에 부합되는지 실용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물론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예 할 것과 아니오 할 것의 식별은 어렵다. 하지만 구분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서면 '시작이 반'이니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경구가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가 세상을 이끌게 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구는 어떤 것일까. 불교·유교 등 한국 종교 전통에서 나오는 '마음이 곧 부처다(即心是佛)', '인내천(人乃天)',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인여천(事人如天)', '홍익인간(弘益人間)'과 같은 것들이 아닐까. 또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어떤 경구를 이 땅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지난 수백 년이 서구화(Westernization) 시대였다면, 언젠가 동양화(Easternization) 시대가 개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동양화 시대의 지도 국가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이 암울해 보인다. 세계 중심국은 커녕 나라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 경구가 시급하다. 과거에 나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불',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같은 뜨거운 경구를 들고나오는 정치세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社說

신재생에너지 전송 못해 발전기 꼬라니

전남은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1번지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전남은 화석연료를 버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타 지역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전기를 땅바닥에 버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돈 들어 생산한 전기가 우리 지역에서는 쓰고 남아 돌지만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낼 송배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이로 인해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오는 2031년까지 추가 발전 허가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전기사업허가만 받고 아직 발전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여 지역 사업자와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제공시스템인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에 따르면 광주지역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건수는 지난달 7일 기준 2396건이지만 사업 개시

건수는 1828건으로, 아직도 24%인 568건이 발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전남의 경우 전기사업허가 건수는 4만 811건이나 되지만 사업 개시 건수는 불과 1만 7999건으로 56%인 2만 2812건이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송배전 인프라 부족에 따라 발전 사업 개시도 7년 정도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전남 등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의 전력 생산을 제한하는 출력제어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생산 신재생에너지를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송배전 설비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주민들도 예전같이 송배전 시설 입주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줄 바란다.

정부 생산량 예측 실패로 쌀값 떨어져서야

정부가 통계청 등 국가 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측 실패를 반복하면서 혼신을 빚고 있다. 허술한 통계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상황이라 농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자료를 인용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 당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70만 2000t으로 예측하고, 수요량은 360만 7000t으로 추정해 쌀 9만 5000t이 남을 것으로 수급안정대책을 세웠지만, 올해 20만을 시장 격리하고도 10월 말 현재 15만t이 넘쳐나는 등 쌀 수급 관련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지난 2021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2021년 쌀 수요량은 361만 4000t으로 산출하고 쌀 생산량을 388만 2000t으로 예측해 27만t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현장은 정부 예측과 사뭇 달랐다. 지난 2022년에도 376만 4000t 생산에 360만 9000t의 수요가 예측되면서 15만 5000t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은 온도차가 컸다. 농민들은 이처럼 기초조사부터 잘못된 쌀 수급대책 때문에 매년 수십 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면서도 쌀값 하락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80kg 당 20만 원 선은커녕 수확기 이후 18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예측 통계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쌀 수급대책 마련에 있어 쌀 생산량과 쌀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쌀 소비량 예측의 정확성도 높여야 한다. 소비 패턴의 급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고 정확한 소비량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정밀한 통계 작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꿈꾸는 2040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한 해 농사로 비유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22대 국회가 들어선지 반년이 안 된 상태에서 열린 국감이기에 국정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이해도나 문제점을 찾아 감사를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반면 22대 국회의 초선의원들이 전체 300명 중 134명인 44%인 절반에 달해 첫 국감을 맞이하는 초선의원들이 느끼는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파우워일 것이다. 행정부의 장관들을 상대로 한 호통은 기본이다. 심지어 대법원이나 법관 관력기관인 감사원과 검·경, 국세청 나아가 대통령과 그들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질의 고성은 "이게 국회의원이구나"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에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이 행정부에서도 발

헌법 개정을 통한 국정감사 개선

의는 가능하나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현실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 역시 국회와 의원들의 파우워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을 것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는 전 세계 통틀어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감사 제도는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지만 미국은 상사정문화 제도가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정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그 요건이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 않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기간이 정해진 감사가 아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상임위별로 상시적인 국정조사 활동과 청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여·야는 매년 상시 국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나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국감에 대한 평가가 맹탕국감으로 내용 없는 정치쇼로 비판을 받고,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의와 호통, 행정부의 무성인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 증인 불출석 등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지만 여전히 기간을 정해놓은 국정감사는 1년 내내 견제와 감시를 받는 행정부나 견제 감시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1년 내내 상

시국감을 방어해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21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50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보다 상시 국감이 수박 겉 핥기 식의 현재 국감보다 훨씬 질적으로나 나아 보이지만 여·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상시 국감은 구호만 남무할 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감기간이 짧다 보니 국정전반을 감사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따르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후 조치 또한 미흡한 게 사실이다. 호통은 치지만 사후 지적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에 소홀하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선의원이 절반 가까이 22대 국회가 이제 반년을 지나고 있다. 남은 임기 3년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각기 다를 수 있을 거라 보여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감을 느낄지 아니면 국감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향유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초선의 기개로 현재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다른 주요국들처럼 국정조사 요건을 완화해 상임위별로 상시 조사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국회개혁을 주장할 초선의원들의 기개가 보고 싶다. 물론 현행 헌법 제 61조 제1항의 국정감사를 개정하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기고



서금석 전남대 사학과 강사

겨울인 줄 알았다면 낭패다. 입동은 겨울 준비하라는 메시지다. 대개 양력 11월 7일이 입동(立冬)이다. 11월 초순이면 음력 10월에 접어들다. 두만강도 언다. 입동 지나면 물이 얼기 시작하고 땅도 언다. 사냥감을 이용한 썰매장으로 동네 뒷산 개 짖는 소리 요란했다. '세시잡기'에 '한양 사람들은 10월 초하룻날에 술을 준비해놓고 저민 고깃점을 회로에 구우면서 둘러앉아 마시며 먹는데 이것을 난로(煖爐)라고 한다'고 했다. 입동 즈음 옛풍속이다. 무배추·마늘·고추·소금 등으로 김치를 담가 장독에 담근다. 여름의 장 담그기와 겨울철 김장은 민가에서 일 년을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동국세시기'는 전한다. 아직 추수 마치지 못한 바쁜 손길은 더 분주하다. 고구마 수확 후 텅 빈 밭고랑에 찬 바람 분다. 쉼 새가 없다. 김치 담글 무와 배추를 수확해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들로 겨울을 맞이했다.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로, 그사이에 자리 잡은 한반도에는 겨울철 북쪽 찬 바람이 분다. 삭풍(朔風)이

입동(立冬)은 추운 겨울 준비하라는 메시지

다. 매월 음력 초하루를 삭일(朔日)이라고 했다. 초승달을 보고 지은 낱자 이름이다. 음력 초하루 초저녁에 뜬 초승달이 삭월(朔月)이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초하루에 초승달 보기 힘들다. 삭풍이 북풍이다. 초승달이 마치 칼처럼 생겼기 때문에 삭풍은 칼바람이다. 귀마개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다. 고대시대부터 귀마개의 고급화는 신분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겨울을 예고한 입동은 마라톤 출발 전, 모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준비운동 시간과 같다.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다. 태양 황경으로 보면 225도가 된다. 계절마다 6개의 절기를 배정해 24절기로 만든 것은 숫자 24가 편했기 때문이다. 절반으로 나누면 달의 주기 12가 되고, 다시 곱하면 24가 되고, 4와 6으로 곱해도 좋고, 24를 4나 6으로 나누어도 편리했다. 숫자 24는 경쟁에서 승리했다. 달과 태양을 관찰하고 만들어낸 24절기는 지금의 하루 24시간 체계의 모델이다. 우리가 더 먼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더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시간은 과거를 보면서 역사를 만들었다. 빛의 속도로 달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1.28초다. 곧, 우리가 보는 달빛은 1.28초 전의 달빛이다.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시간은 8분 30초가량이다. 지금 보았던 태양 빛은 8분 30초 전의 빛이다. 북극성 빛은 434광년 만에 지구에 닿는다. 오늘 밤 북극성이 보인다면 빛의 속도로 434년 전의 것이다. 1590년의 북극성의 별빛이 오늘 밤 지구에 도달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밤에 보는 북극성의 빛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별빛이었다. 하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고, 과거를 볼 수 있는 빛을 보냈다. 입동은 봄·여름·가을, 과거가 가져다준 새로운 계절의 문턱이다. 각각의 절기 사이 대략 15일에 24를 곱하면 360으로 원둘레 각도가 된다. 고려시대 달력으로 1년의 길이는 365.2446일이다. 현재의 기술로 측정해 얻은 1년의 길이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옛사람들은 각 절기와의 사이를 15.2185일로 소수점까지 계산해 냈다. 입동은 24절기 중 19번째이므로 1년 중 273.933일이 지났다. (= 15.2185일 × 18일). 1년 중 75%가 지났다. 남은 25% 남은 입동 계획에 달했다. 입동 전후, 제주 노지 감귤을 수확한다. 밀감으로 불리며 맛볼 수 있는 귤은 20세기 들어왔지만, 제주 감귤의 역사는 꽤나 오래됐다. 제주의 감귤 생산과 진상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제주의 귤(橘子)은 고려 왕실에 바쳐졌다. 대마도는 사신을 보내 감귤(柑橘)을 고려에 보냈다. 조선 왕실은 10월에 수확한 감귤을 종묘에 헌신했다. 감귤은 아주 귀했다. 해방 이후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개량종이 재배되면서 제주 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이 끝나무였다. 끝나무 한그루면, 지식 대학을 보냈을 정도였다, 하여 끝나무를 대학나무로 불렀다. 지금의 제주도 감귤 생산은 타계 신부가 심은 14그루의 은주밀감 덕이다. 제주 감귤은 중국 절강성 은주 지역에서 유래한 개량 종이다.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타계 신부가 1911년 일본에서 선교 중이던 포리 신부로부터 은주밀감 14그루를 받아 재배하면서, 서귀포 일대는 최대 감귤 재배지가 되었다.

無等鼓

특정 정치인, 정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한다. '집토끼', '고정층'으로 불릴 때도 있지만 '물지 마 지지'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정치인 팬덤과 결합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굳건한 지지세를 보이기도 한다.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빠'라는 팬덤이 굳건한 지지를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다울 백 사건, 도아치모터스 운석열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다울 백 사건, 도아치모터스 점 변경 의혹, 마포대교 하역 사업의 징계 무마 의혹에다, '명태군 게이트' 등이 실재없이 터져나오는데도, 임기내 30%의 굳건한 지지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콘크리트 같은 윤 정부 지지층의 '변심'을 엿볼 수 있는 통계다. 특히 집권 이후 최저치를 찍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19%)보

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이 1%p 낮게 나온 점은 보수 텃밭의 이탈세가 두드러짐을 그대로 보여준다. TK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견고할 것 같은 층층 지지층은 어느새 레임덕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30%선을 훨씬 밑도는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외면하는가 하면 총발집회, 시국선언이 잇따르며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는 등 요동치는 민심의 '전광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가 '19%'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민 행기'가 보다 '부인 행기'에만 몰두한다면 지지율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 순간이 레임덕, 테드덕의 시작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런 말도 했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19% 정권'이 겁이 없으면 어찌란 말인가.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19% 정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주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